

가계빚, 소득 1.6배 달해 '사상 최고'

가계가 진 빚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처분가능소득의 1.6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4일 국회에 제출한 '2017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말 기준 국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1419조1000억원) 비율은 155.5%로 지난해 말보다 2.1%p 상승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55.5%

"1년 소득 다 모아 빚 갚는데 써도 모자라"

관련 통계가 분석된 2013년 1분기 이후 사상 최고치다.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은 가계 소

득에서 세금 등 비소비성 지출을 빼고 소비나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한은은 이번 보고서에서

지난 3년간의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 처분가능소득 비율을 이용해 추정했다

결국 가계가 1년 소득을 모아 전부 빚을 갚는 데도 모자란다는 얘기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 2013년말 133.9%, 2014년말 136.4%, 2015년말 142.9%, 2016년 153.4%로 꾸준히 상승했다.

가계가 소득 증가는 더딘데, 그동안 저금리와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풀이된다.

명목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도 3분기 기준 193.7%로 지난해말(193.2%)보다 0.5%p 상승했다. 2분기(193.9%)보다는 소폭 쪼그라졌다.

민간신용은 가계나 기업의 대출금이나 정부용자, 기업채권 등 부채를 합한 것이다.

정부를 뺀 민간 부채규모가 GDP의 1.9배를 넘어섰다는 의미다. 장기 추세치와 벌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장기추세치와의 갭은 -3.5%p로 지난해 말(-2.6%p)보다 소폭 확대됐다

부문별로는 GDP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94.1%로 지난해말보다 1.3%p 올라갔다. 반면 기업신용 비율은 99.6%로 같은 기간 0.8%p 떨어졌다.

한은은 "정부와 감독당국의 가계 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로 가계신용의 높은 증가세는 다소 둔화됐지만, 예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앞으로 대출금리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채무상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소득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롯데백화점 광주점 3층 루이엘 모자전문 브랜드에서 고객이 부모님 선물로 멋스럽고 보온성이 뛰어난 모자를 살펴보고 있다.

롯데백화점, 연말연시 행사

크리스마스 선물상품전 진행...다채로운 문화 공연도

어느덧 거리에는 캐롤송과 구세군의 종소리가 들려오면서 한 해를 돌아 보게 되는 12월,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선물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에서는 크리스마스 약 1주가량 앞두고 다양한 이벤트와 선물 상품전을 펼친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려는 20~30대 젊은 연인들을 위한 선물부터 아이, 부모님, 그리고 나를 위한 특별한 선물까지 다양하게 각 층별로 마련되어 있다.

사랑하는 연인들에게는 주얼리, 시계, 향수 선물을 추천, 존경하는 부모님에게는 보온성이 뛰어난 모자, 건강식품, 안방의자, 소중한 우리 아이를 위한 선물을 내가 만드는 레고, 완구세트를 추천한다. 또 나를 위한 작은 사치로 평소 갖고 싶은 선물 하나쯤은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와 더불어 연말 가족과 함께 홈 파티를 계획하고 있다면 스테이크 요리와 와인도 추천 한다.

이 외에도 문화 이벤트가 롯데백화점 광주점 11층 문화센터에서 진행된다.

23일 오전 11시 '크리스마스 미니 모자 만들기', 24일 오후 2시 '우리아이 생각 맞추기 스피드 퀴즈쇼', 오후 3시 '신타 소원 양말 만들기' 그리고 25일 오후 2시부터 '곰돌이의 크리스마스 인형극'이 마련되어 있으며 8층 이품매장에서는 투덜포 머리띠, 초콜릿을 증정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최상주 영업지원팀장은 "올해 크리스마스는 지난해와 다르게 주말과 이어져 가족과 연인이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 방문 고객에게 쇼퍼뿐만이 아닌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이마트, 해외 인기 완구 모았다

14일 오전 서울 한강대로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해외 직수입 SNS 인기 완구를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완구를 직수입해 판매에 들어갔다.

'대출도 양극화'...은행들, '고신용자 대출'만 늘렸다

은행 신용대출 문턱은 고신용자에게는 낮지만 중·저신용자에게는 높기만 했다.

최근 2년간 은행들이 고신용자에게 내준 가계 신용대출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신용자 대출은 오히려 감소해 양극화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14일 국회에 제출한 '2017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기준 은행권 가계 신용대출 120조9000억원 가운데 고신용자(1~3등급) 비중은 56.4%로 11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신용자(4~6등급)와 저신용자(7~10등급) 대출 비중이 각각

31.7%와 11.9%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이다.

특히 고신용자 비중은 최근 2년간 급격히 늘었다. 지난 2015년 이후 고신용자 대출은 8.7%p 확대됐

은행 신용대출 중 고신용자 비중 8.7%p 나홀로 증가

"은행, 평판훼손 등 우려해 중·저신용자 대출 기피"

다. 반면 중·저신용자의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6.0%p, 2.7%p씩 줄어 들었다.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위험 부담이 적은 고신용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내 준 것이다.

중·저신용자들은 은행의 외면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9월 중 은행의 중신용자 대출금리는 4.6~7.0% 수준이었지만, 비은행금

융기관은 13.4~22.5%로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저신용자는 상황이 더 안 좋았다. 제2금융권에서조차 중신용자 대출 비중은 최근 2년간 0.3%p 감소한 수준에 그쳤으나 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5.4%나 줄어들었다. 제2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리기 힘든 저신용자는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 등에 내몰릴 수 밖에 없게 된다.

한은은 "은행들은 자산건전성 악화와 높은 금리 적용에 따른 평판훼손을 우려해 2014년 이후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취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중신용자에 대해서도 신용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역선택을 우려해 대출을 기피하거나 대출금리를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 신용대출 시장에서 시장분할 심화와 업권간 비대칭성을 줄이기 위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롯데마트 "내년부터 담배 판매 안판다...고객 건강 최우선"

"건강전문회사로 진화"

롯데마트가 내년부터 담배 판매를 중단한다

14일 롯데마트는 내년 1월1일부터 전국 롯데마트에서 담배를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내년 2월초 한국인 식단에 맞춘 건강기능식품 28개를 출시할 예정이다. 여름과 겨울 등 계절별로 건강기능식품을 선보일 방침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체질 개선의 일환으로 바뀔다"며 "고객의 건강

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강전문회사로 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롯데마트는 또 프리미엄 건강라이프 브랜드 '해빗'을 강화한다. 건강기능식품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롯데마트는 내년 2월초 한국인 식단에 맞춘 건강기능식품 28개를 출시할 예정이다. 여름과 겨울 등 계절별로 건강기능식품을 선보일 방침이다

뉴시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